

금주 Contents - **해사법률** 이슈

적극적인 선원 권익 보호 및 환경 개선 향상에 앞장서다

IMO, CGPCS 회의 결과 보고 및 인도 해상무기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더 이상의 작업 논의 중단^{a),b)}

■ 제20차 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그룹(CGPCS)¹⁾ 전체회의가 모리셔스에서 2017년 7월 개최되었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함

- IMO 법률위원회(LEG)는 IMO 사무국이 CGPCS의 작업반(Working Group²⁾)으로 알려진 CGPCS의 법률포럼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적관련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함
- 2017년 법률포럼은 모리셔스에서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CGPCS(20번째 CGPCS 총회) 본회의 기간 동안 같이 개최됨
- CGPCS는 2016년 10월 15일 아프리카 연합의 로메 헌장²⁾의 체결과 2017년 1월 12일 지부티 행동강령³⁾에 대한 제다협정 채택 등 해적 및 관련 해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함
-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사건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CGPCS에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CGPCS 전체회의는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임

■ 인도의 해상무기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LEG에서 더 이상의 추가 작업 및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

- MSC 제97차(2016.11)에서 인도가 해상무기고에 대한 국제규정체계 개발을 위한 제안을

1) 해적퇴치연락그룹(CGPCS :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)

2) 로메 헌장(Lomé Charter : The African Charter on Maritime Security, Safety and Development in Africa) : 2016sus 10월 토고 로메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 특별 정상 회의의 결과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안전, 보안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룸

3) 지부티 행동강령(Djibouti Code of Conduct) :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 발생하는 해적과 무장강도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다룸

하였으나 MSC 제98차(2017.6)에서 비강제적 국제규정체계로서 해상무기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

- IMO 사무총장은 CGPCS의 VLF(Virtual Legal Forum)를 통해 인도가 제안한 해상무기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초안을 검토하고 차기 위원회에 관련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
-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상무기고와 관련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지만 응답이 거의 없었고 IMO의 소관을 넘어 산업체와 ISO⁴⁾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하며 LEG에서 더 이상의 추가 작업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

선원 유기 사건의 정보 구축 및 최신화를 통해 유기 사건의 빠른 해결 촉구^{b)}

■ 선원의 유기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한 공동 정보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함

- IMO/ILO⁵⁾는 선원 유기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유지해야한다고 결정함(IMO/ILO 합동 제4차 회의, 2002.9)에 따라 2005년부터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04차 LEG에서는 많은 미해결된 선원 유기 사건이 남아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(ILO), 국제해사기구(IMO), 국제운수 노조 연맹(ITF) 등이 함께 노력하여 관련 정보를 최신화 하였음
- 공동 데이터베이스 기능 향상을 위해 정보현황, 사건 조치에 대한 정보, 정보의 정확성 보장 등 상세하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예정임

■ ITF는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 및 1년 동안의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사건이 시급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

- 국제운수노조연맹⁶⁾(ITF)은 제105차 LEG(2018.4) 회의에서 2014년 MLC⁷⁾ 개정안 발효 후 1년 동안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발표함
-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(2017.1) 선원 유기 사건의 전체 중 16건은 해결, 16건은 분쟁,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3건으로 조사됨. 기국별로는 파나마 소속이 전체의 22건(49%), 선원이 유기된 장소로서는 아랍 에미리트 지역이 11건(20%), 국적별로는 인도가 175명 순으로 높았음

4) 국제표준화기구(ISO;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

5) 국제노동기구(ILO;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

6) 국제운수노조연맹(ITF ;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)

- 인도의 경우 선원이 유기된 동안 선원 및 선원의 가족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선원들은 선주의 허락 없이 하선할 수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함
-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자국 항만을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원 유기 시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입항하도록 한 규정을 소개함
- IMO 및 ITF 사무국은 선원유기사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기국들이 선원유기사건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

IMO,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^{b)}

■ IMO는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지침서 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

- IMO는 2017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선원들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국제 워크숍 결과와 2018년 7월 아시아에서 개최될 지역 워크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소개함
- 선원들의 중요한 역할, 해양사고 이후 선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법적 보호 필요성, 지역별 법률 시스템과 문화 및 언어의 차이 등에 관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선원들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
- 워크숍에서 지역 및 국가적 참석을 통해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전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
- 지역 워크숍은 ITF와 필리핀이 공동으로 2018년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2019년 제106차 LEG에서 공유할 예정임

선원 유기 시 선원 안전 확보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■ 정부, 관계기관 및 선사들은 선원들이 유기 되었을 경우 상호 협력 및 협조하여 조속하게 해결하고 선원 안전 확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필요

- 정부는 전국 선박관리 선원 노동조합, 선주협회(선주) 및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향후 선원들이 유기되었거나 억류된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구축하여 해결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 필요가 있음
- 2014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(MLC)을 수용한 국내 선원법 개정안(2017.1)으로 유기된 선원들에 대한 선주의 책임이 강화 된 만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

7) 해사노동협약(MLC ; Maritime Labour Convention)

- 선주들이 선원의 유가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가구제보험이 의무화 된 만큼 선주들 스스로가 선원보호를 위해 적극가입하고 선원복지 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
이혜진 전문연구원
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jinlee@kmi.re.kr / 051-797-4626)

참고자료

- a) IMO 제105차 법률위원회 의제4,5번 문서 참고(<https://docs.imo.org/Category.aspx?cid=45>)
(2018.07.18. 검색)
- b) 제20차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(CGPCS) 전체회의 참석 결과 참고
(http://www.mofa.go.kr/www/brd/m_3993/view.do?seq=366130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)(2018.07.18. 검색)